



시즌 8승·ML 40홈런 선착 '천재' 오타니, 또 만화야구

100이닝-100삼진·6연속경기 QS·7연승 역대 에인절스 '좌타자 최다홈런' 기록도

오타니 쇼헤이(27·LA 에인절스)가 '야구천재'의 위용을 다시 한번 뽐냈다.

오타니는 19일(한국시간)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원정경기에서 선발투수 겸 1번타자로 나섰다. 마운드에선 최고 구속 98.8마일(약 159km)의 직구를 앞세워 8이닝 동안 6안타 1홈런 무4사구 8삼진 1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시즌 8승(1패)째를 따냈고, 타석에선 시즌 40호 홈런을 터트리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평균자책점(EERA)은 2.93에서 2.79로 낮아졌다.

8이닝은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 한 경기 최다 이닝이다. 이날 또 100이닝-100삼진도 달성한 그는 최근 6연속경기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와 더불어 7연승을 신고했다. 5월 29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6이닝 3실점) 이후 패전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타석에서도 홈런을 쳐내며 승리를 자축했다. 2-1로 앞선 8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디트로이트 호세 시스네로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1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4경기 만에 나온 홈런이자, 올 시즌 40번째 야치다.

올 시즌 투타겸업을 하면서도 홈런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들 중 가장 먼저 40홈런 고지를 밟는 기염을 토했다. 40홈런은 1982년 레지 잭슨의 39홈런을 넘어서는 역대 에인절스 소속 좌타자의 최다 홈런 기록이기도 하다.

에인절스의 잔여경기는 40게임이다. 오타니가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은 무궁무진하다. 타자로도 타율 0.269, 40홈런, 87타점을 기록 중인 가운데 두 자릿수 승리와 2점대 ERA, 50홈런, 100타점 동시 달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강철부대 '시즌2' 섭외전쟁이 시작된다

연내 방송 조만간 참가자 모집 공고 '시즌1' 참가자 재출연 여부도 검토 이원용 PD "더 다양한 부대로 구성"

채널A·SKY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가 종영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기가 뜨겁다. 역대 채널A 예능프로그램 최고 시청률(6.8%·닐슨코리아)을 갈아 치웠고, 육준서·황충원·김민수 등 출연자들도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끌면서 방송가를 흥행무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시즌2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높인다. 제작진은 최근 새 시즌 제작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연내 방송이 목표다.

● "더 다양한 부대와 재미로"

시즌2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예비역들의 경쟁을 그린다. 시즌1에서는 우승팀 해군특수전전단(UDT)과 준우승팀 해난구조전대(SSU)를 비롯해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해병대 수색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등 총 6개 부대 예비역이 참가했다.

연출자 이원용 PD 등 제작진은 더욱 다양한 부대를 소개하기 위해 섭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만간 참가자 모집 공고도 낼 예정이다.

시즌1 섭외 당시에는 '특수부대 간의 대결' 포맷에 부담을 느껴 출연을 고사한 예비역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수부대원들의 희생과 사



채널A·SKY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 시즌2에 대한 기대 속에 제작진이 본격적인 제작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은 시즌1에서 해군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전대(SSU) 등 6개 특수부대 출신 출연자들이 참호경투를 벌이는 모습. 사진제공 | 채널A

명감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이끌어낸 덕분에 섭외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즌1 참가자들의 재출연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쟁 참가대원, 스튜디오에서 경기를 해설하는 '전략 분석팀' 등 여러 방식을 두고 출연자들과 논의할 방침이다.

이원용 PD는 19일 "아직 기획 초기 단계"라면서도 "이전 시즌을 보완하고 재미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즌1 우승 UDT팀은 기부까지

'강철부대' 출연자들의 활약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일 시즌1에서 우승한 UDT 팀의 김범석(김민준)·육준서·정종현·김상욱은 총 상금 5000만원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천세종병원에 기탁했다. 기금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지원에 쓰인다. UDT 팀은 우승 직후 상금 기부에 대한 뜻을 모았고, 최근 육준서가 해당 병원을 알아내 직접 기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SSU의 황충원과 김민수 등은 종영 이후 채널A '도시어부3', MBC '아무튼 출근!'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과시했다. 특전사 박근(박준우)과 해병대수색대 오종혁 등 연예인 출연자들도 '강철부대' 이미지를 팔팔삼아 활동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이강인 다시 이적설...올버햄튼·그라나다 유력 행선지 부상

올버햄튼, 중앙·측면 강화위해 군침 그라나다 단장 "이강인 지켜보고 있다"



이강인

2020도쿄올림픽 이후 잠잠했던 이강인(20·발렌시아)의 이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올버햄튼 원더러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그라나다가 유력한 행선지로 꼽힌다.

내년 6월 발렌시아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이강인은 올 여름 이적이 유력하다. 한국이 도쿄올림픽 8강에서 탈락한 뒤 이적설이 잦아든 듯했지만, 최근 EPL과 라리

가 복수의 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한국시간) 스페인 매체 카데나 세르에 따르면, 올버햄튼은 중앙과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발렌시아에서 이강인과

곤살로 게데스(25)를 영입하려고 한다. 그 대신 발렌시아는 공격수 라파 미르(24)와 3000만 유로(약 412억 원) 이상의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강인을 향한 그라나다의 관심은 더 구체적이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그라나다 펠 보야다 단장은 "이강인을 포함해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고,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해당 포지션을 보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보야다 단장은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 트레이드로 이강인을 영입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여름이적시장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선수 쪽에 이적 주도권이 있지만, 한창 뛰어올라 나이의 이강인 입장에서 자칫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그는 호세 보르달

라스 신임 감독의 부임 후 진행된 발렌시아의 프리시즌에 불참하면서 주전경쟁에서 밀렸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뒤 18일 아야 팀 훈련에 복귀했다.

다만 발렌시아는 다급한 처지다. 스페인 매체 아스에 따르면, 발렌시아는 레알 바야돌리드의 브라질 공격수 마르쿠스 안드레(25)의 영입을 원하지만 비유럽선수(NON-EU) 쿼터에 여유가 없다. 이강인을 내보내 쿼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000만 유로(약 137억 원)의 이적료가 문제다. 보스만 룰에 의해 내년 1월부터는 구단의 동의 없이 이강인이 자유롭게 이적협상을 펼칠 수 있어 발렌시아가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할 팀은 없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0108-중-38478호

귀두확대 시술로 조루증 치료!!

주사로 귀두확대와 동시에 음경확대 가능!

10분 정도의 간편한 시술!!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

늘푸른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은 다년간 조루증 치료에 전념하여 오랜 해외 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학식으로 조루증 치료에는 귀두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귀두 확대가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이용하여 귀두와 음경에 캡슐형 히알론산을 주입하는 확대술이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비수술적확대법이며

이는 주사로 간단하게 필러를 음경과 귀두에 주입하여 확대시키는 간편한 시술법이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확대되는 효과와 동시에 귀두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사정이 지연되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나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

▶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 시술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 성관계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
▶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늘푸른비뇨기과의원 02) 2272-5588 / www.egclinic.co.kr
종로3가역 14번출구앞 6층